

강이야기

1

River & Culture



정해옥 | (주)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 전문  
(jhok88@dohw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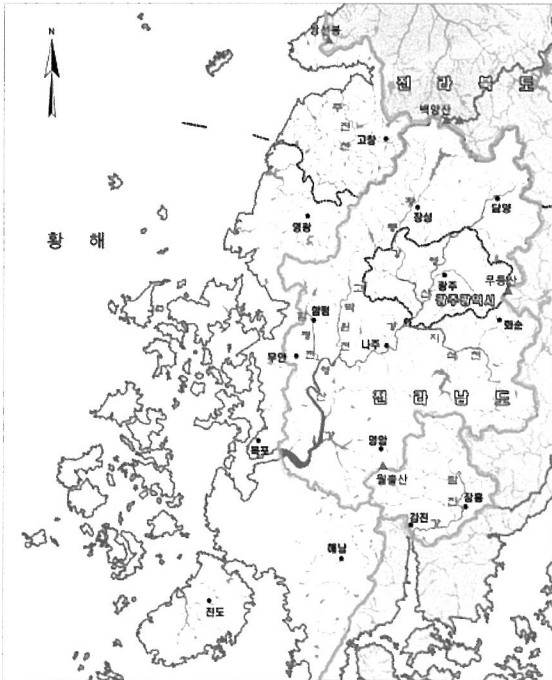
### 하천지명 유래 이야기 5

# 영산강(榮山江)

## 영산강 (榮山江)

‘영산(榮山)’이라는 이름은 고려 때 신안군 흑산면 영산도(榮山島) 사람들이 왜구를 피해 목포 앞 강을 거슬러 올라 나주시 근처의 포구에 정착하였는데 이들이 개척한 포구 이름을 영산포(榮山浦)라 한데서 유래 되었다. 남포(南浦)에 거

주하였으므로 영산현이라 했다가 고려 공민왕 12년에 폐현 되고 나주에 병합되었는데 강에 고을 이름을 붙여 영산강이 되었으며 영강(榮江), 몽강(夢江), 몽탄강(夢灘江)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삼국사기」에 보면 영산강 종류에 위치한 나주의 지명은 통일신라 때 금성(錦城)이었으므로 이에 연유하여 강 이름을 금천(錦川), 금강(錦江), 금강진(錦江津), 금호강(錦湖江)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영산강 수계

나주시 영산동은 조선 초기 영산포에 영산창(榮山倉)이 설치되어 나주·순천·흥양·강진·낙안·보성 등 17개 고을 세곡을 수납하여 서울로 운송하던 곳으로 1512년(중종 7) 세곡창을 법성포로 옮길 때까지 번창하였으므로 금천, 금강 대신에 영산강으로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산포를 영포라 고도 하였는데 영포(榮浦)의 영(榮)은 소리로 양(梁)과 같은 뜻의 영(靈)으로 볼 수 있다. ‘영’은 ‘들’ 또는 ‘들’을 뜻하고 포(浦)는 개를 뜻하므로 들을 지나가는 개, 곧 ‘들개’가 된다. 그런데 ‘들’을 ‘미’라고도 하였으므로 ‘들이’ ‘들미’로 되어 ‘들이’ 거듭된 ‘말’이 되고 ‘미’를 ‘메’로 표기하여 산이 되므로 들미개는 영산강이 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나주시 영산포는 수륙교통의 중심지로 강물이 영산포구를 지나 흘러 내려간다는 뜻으로 나주에서 영산포까지를 영산강이라 부르게 된 것이 그대로 강 이름이 되었다.



「동국여지승람」이나 「연려실기술」에서 보면 영산강의 근원은 여덟인데 ①무등산 서학봉 ②담양 추월산 ③장성 백암산 ④노령 ⑤광주 무등산 ⑥능주 지참 북쪽 ⑦영광 수연산 ⑧나주 도야산에서 나와 이 물들이 합해서 흐르다가 나주 동쪽에 이르러 광탄이 되고 나주 남쪽은 영산강이 된다고 하였다.

영산강 유역에는 임진왜란과 의병항쟁 등과 관련된 수많은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주 먼 옛날 나주에 근심 걱정 없이 살던 정노인이 있었는데 아들 딸의 효(孝)가 높아 나주골 원님이 상으로 여의주를 내렸는데 강을 건너던 중 빠뜨리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정노인은 근심 걱정에 몸져누웠는데 어느 날 원님의 종자가



『여지도』(전라도) 영산강 일대

찾아와 한 달 뒤 여의주를 가져오라는 분부를 전했다. 곡기를 끊고 죽는 날만 기다리던 중 며느리가 큰 잉어를 사서 잘 구운 후 드시기를 간절히 권하였다. 마지못해 젓가락으로 잉어 배를 가르자 여의주가 나왔다. 정노인이 원님을 찾아가 여의주를 내놓자 깜짝 놀라고 감복하여 자기가 꾸뻐던 사실을 고백하고 후한 상을 내렸다. 기쁨에 찬 정노인은 잉어를 잡았다는 광탄가에 글방을 세우고 사당 이름을 며느리의 이름을 따서 영산서원이라고 지었는데 이로 인해 강이름이 영산강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영산포 영산동에 효심이 지극해 사후에 나라에서 정랑벼슬을 내렸다는 이유경 부부를 모신 영산사(榮山祠)가 있는데 이 사당에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정유재란(1543년) 때 85세의 부친을 등에 업고 피난을 가다가 왜놈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나를 죽일망정 부친은 살려 달라’는 효성에 왜놈도 감복하여 모두 살려 주었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이유경은 3년간 시묘살이를 했고 그 시묘가 지극해 밤마다 호랑이가 묘 옆에서 보호했다고 한다. 그의 부인은 영산(靈山) 신씨(辛氏)였는데 효심이 남편보다 높았다. 1712년 이유경 부부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서원을 지을 때 신씨 부인의 본관을 따서 연산서원이라 했고 금강(錦江)은 영산강 또는 영강(靈江)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 그 외 명칭

### ▶ 금강 錦江

전라남도 나주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금강은 금천(錦川)이라고도 하였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나주)에는 “나주 남쪽 10리에 있다”고 하였다. 『대동여지도』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금강(錦江)과 영산포가 마주 보고 있다. 충청도 공주의 금강에서 볼 수 있듯이 ‘금강’은 큰 강을 뜻하는 우리말의 아사(雅詞)로 볼 수 있다.

### ▶ 금호강 錦湖江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지방에서 부르던 현지명칭의 하나이다. 영산강을 금천(錦川) 또는 금강(錦江)이라고도 하였으므로 금호강도 ‘큰강’ 또는 ‘어머니강’을 뜻하는 이름으로서 역시 ‘금’ 계열어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 ▶ 남포진 南浦津

전라남도 나주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남포 또는 남포창이라고도 하였으며 ‘남포’는 우리말의 앞개를 뜻하는데 이곳이 나주목(羅州牧)의 남쪽 강가로서 배가 닿는 포구이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남포강(南浦江)으로 나온다. 지금의 나주시 영산포 서쪽으로 추정된다.

### ▶ 몽강 夢江, 몽탄강 夢灘江, 몽탄진 夢灘津

전라남도 무안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몽탄(夢灘) 또는 몽탄진(津)으로도 나온다. 이 지역은 영산강이 S자로 굽어져 흐르는 곳이므로 구미진 곳이라는 뜻의 굽(구미)이 꿈 몽(夢)으로 해석되어 몽강 또는 몽탄, 즉 꿈여울이 되었다. 이것은 구미진강, 구미진 여울이 꿈여울로 되었고, 여기에 고려 초 왕건과 견훤의 싸움터로서 왕건의 꿈에 관한 전설(왕건이 후백제와 싸울 때 꿈에 신인이 나타나 무사히 강을 건너가 견훤의 군대를 격파하였다)이 후대에 녹아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에 몽탄면과 몽강리가 있고, 그 주변에도 당시의 싸움과 관련된 지명이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 ▶ 영강 榮江

전라남도 나주지방에서 부르던 현지명칭의 하나이다. 나주 영산강변의 남포진을 영강 또는 영강진(榮江津)이라 하였다. ‘영강’은 영산강의 줄임말로 볼 수 있으며, 지금 나주시에 영강동(榮江洞)이 있다.



『광여도』(나주) 영강(영산진) 일대

### ▶ 극락강 極樂江

광주시 서구 벽진동과 광산구 신촌동 사이에 놓여있는 극락교 부근에서 부르는 구간명칭으로 극락강은 조선시대 여관 극락원(極樂院)에서 유래되었다. 이 일대에 있던 조창(정부미 보관창고)을 일러 극락창이라 하였다. 조선후기 김정호가 펴낸 「대동지지」에는 극락교(장암교)의 옛 이름을 ‘벽진’이라 했다. 벽진은 극락교가 놓여있는 마을 이름이다. 극락교는 광주 시내에서 공항 가는 길에 놓여있는 교량으로 이 다리를 건너서 비행기를 타면 극락(極樂)의 세계로 인도되는지 알 수 없지만 강 이름과 다리 이름이 절묘하다. ●